

제4회 경기북부사암 음악예술제 화암사지 화상의 화현 축제



경기북부사암 음악예술제가 양주시에 위치한 지장사 반야보살 특설무대에서 4월 25일 열린다. 봉축 법요식을 시작으로 마당극, 합창, 무용 등의 음악극이 어우러진다. 고양시, 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의 불교연합 합창단 공연이 펼쳐질 이번 예술제는 제4회를 맞이하는 지역 문화 축제이다.

눈에 띄는 점은 양주시 대표 유적지인 화암사지(繪巖寺址 사적 제128호)의 3대화상인 '지공' '나옹' '무학' 대사의 생애와 사상을 사암 연합회 소속 스님들이 직접 출연하여 음악극의 형태로 선보인다고 한다. 귀중한 문화사적에 대한 인식과 복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다. 마당극의 1인자인 김성녀씨와 김종엽씨가 특별출연 하여 관객과 하나 되는 무대를 연출한다. 또한 비보이 그룹 '올스타브레이크스' 팀이 청소년과 어울림 한마당을 펼친다. (031)866-1888

가연숙 기자

해탈로 향하는 관문서 마음 담아

'山門에 서다'展 4월 18일부터



'입차문래(入此門來) 막존지해(莫存知解)' 세간의 얽음알이를 내려놓는 관문인 '山門'에 들어설 때의 마음가짐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사진이라는 시간언어로 전달하는 보운산 석왕사 사진포교예술단체 심상(心像)이 제19회 회원전을 연다. '공문(空門)' '무상문(無相門)' '무작문(無作門)'이라 불리는 진속(眞俗)의 경계에서 카메라 렌즈는 작가의 마음을 대신해 근원적 존재의 물음을 포착한다.

'山門에 서다'展은 4월 18일 부천시청 아트센터를 시작으로 하여 23일까지 1차 전시를 갖는다.(032)320-2456. 5월 11일부터 12일 양 이틀간 석왕사(부천) 전시실에서 2차 전시를 갖는다.(032)663-7771. 5월 26일부터 31일 까지 짜이 드림 포토갤러리에서 3차 전시를 갖는다.(02)2266-5923

가연숙 기자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인도문화와 불교가 활짝 피었다. 서울대미술관MoA에서 '인도 현대 미술:일상에서 상상까지'展이 열리고 있고, 서울대박물관에서는 수요교양강좌 '불교미술-붓다의 세계를 보다, 그리다'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대서 만난 인도문화와 불교

인도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A. 라마찬드란' 'K.G. 수브라마니안' 'M.F. 후세인' 'S.H. 라자' 등의 작품이 왔다. 서울대학교 미술관과 싱가포르 미술관이 공동 주최하여 이 달 25일까지 일정으로, 1947년 독립 이후 인도의 현대미술을 조명하는 전시다. 이번 전시는 인도의 전통과 모던적 이상들이 함께한 작가의 작품을 주제로 식민주의와 민족주의를 둘러싼 상호작용을 함축하고 있다.

더구나 실제와 본질에 대한 고민은 아시아 철학과 미술의 주요 소재가 된다. 라마찬드란(A. Ramachandran)의 '팔라쉬 나무의 탄생'은 신화와 현실의 요소가 중심을 이루는 작품. 화폭에 구현된 자연은, 작품의 전체적인 배경 무대 혹은 피난처가 되고, 신화적 세계는 작가의 모습으로 대변된다. 팜레트용 그릇과 붓을 들고 한참 작업 중인, 불꽃 모양의 오렌지 빛 머리카락을 지닌 상상속의 세는 작가 자신이다. 창조신(간다바, Gandava)으로 표현된 신화 속 상상의 현실화는 한국 불교미술의 정토만다라에 나오는 가릉빈가(迦陵頻伽, 범어 kalavinka)의 음역)와 흡사하다. 신화적 캐릭터는 일상과 신화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두 세계 사이에서 버팀목의 일부본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경계 없는 소용돌이 형상으로 뻗은 나무 가지에 의해 강화된다.

라마찬드란의 '색채3부작' 중 두 번째 작품 '오후'는 연꽃을 소재로 했다. 연꽃은 인도 미술의 고전적인 모티브로 연꽃이 갖는 의미 또한 매우 풍부하다. 정신적인 순수, 초



〈그림 위〉 아추탄 라마찬드란(A.Ramachandran) 팔라쉬나무의 탄생, 캔버스에 유채, 1992. 〈그림 아래〉 아추탄 라마찬드란(A.Ramachandran) 색채3부작 2.오후, 캔버스에 유채, 2006.

월, 깨달음, 여성적 법칙(陰), 수많은 꽃잎들이 서서히 개화하는 복잡한 구조, 지혜(Prjna), 자비(Karuna), 신들의 좌석 등의 의미는 연꽃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내 마음의 연꽃을 형상화하며 자연으로서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구체화 하는 작가의 작품 세계는, 생명과 그 근원의 뿌리가 되는 신화적 상상으로 확대 된다. 신화에 비추어 현재의 일상은 문화적 욕망이 되어 그림 속에 녹아 투영된다. (02)880-9504

1993년부터 시작된 서울대 박물관 수요교양강좌가 27회를 맞이하며 전통미술부 주관으로 불교미술관련 주제의 강좌를 처음 열었다.<도표참조> 일반 관람객의 호기심은 물론 학계에 전문 지식 전달을 위한 강좌로 총11회 진행된다. 강의 내용은 서울대 출판부가 단행본으로 묶을 예정이다.

서울대 박물관 이주형(고고미술학과 교수)부장은 수요교양강좌의 주제인 '붓다의 세계를 보다, 그리다'에 대해 "붓다의 세계를 '보다'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재현된 것이기에 종교가 형이상학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미술은 육구 충족의 재현의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그리다'란, 재현함으로써 물질성을 띄며 앞에 있지만 단순 그림(Painting)의 의미가 아닌 붓다의 가르침과 그 이상으로 현실 너머의 것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내포합니다."라고 설명했다. (02)880-5333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일시	강좌명	교수
4월 23일	불화 속의 지옥	김정희(원광대학교)
4월 30일	임진왜란의 참화와 불교건축의 재건	이강근(경주대학교)
5월 7일	불화로 읽는 불교	정우택(동국대학교)
5월 14일	고려시대 불상과 중국 불상	정은우(동아대학교)
5월 21일	불교의 세계관과 불교건축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5월 28일	임진왜란 이후의 불교조각	송은석(삼성리움박물관)
6월 4일	현세구복의 불교미술	강희정(서울대학교)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머위무침



이른 봄 작고 부드러운 잎을 따오는 머위는 더운 물에 살짝 데쳐서 먹으면 봄에 좋은 강장식이 됩니다. 봄철 나른한 몸과 식욕 부진에 특히 효과가 있습니다.

머위는 전국 각지에 자생하는 야생종으로 다년생의 속근성 식물로 겨울철 지면에 꽃봉오리가 발생해서 초여름에 추대하여 꽃이 핍니다. 주로 잎자루를 식용으로 쓰며, 우리나라에서 옛부터 봄과 초여름에 이용되는 계절채소입니다.

또한 머위의 크산신, 콜린 등의 성분은 각종 염증을 진정시키고 약품의 독과 식중독을 다스리는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머위를 해독제로 널리 사용해왔습니다.

머위에는 갈변물질인 폴리페놀화합물이 있어 쓴맛이 강하므로, 요리 전에 물에 담가두어 쓴맛을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와 함께 먹으면 해독효과가 가장 높을 것인 반면 들깨가 머위의 쓴

연령·성별·체질 상관없이 감기 염증에 효과 약품의 독과 식중독 다스리는 탁월한 효능있어

연령과 성별, 체질에 상관없이 약효가 좋고 감기나 염증, 기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민간요법에서는 생선중독에는 머위 잎과 줄기를 찐 즙을 마시면 효과가 있고, 벌레에 물렸을 때 머위 즙을 바르면 좋다고 합니다. 약재로 쓰기에는 머위의 꽃이 절반쯤 핀 것이 좋습니다. 머위 잎에는 비타민 A를 비롯한 비타민이 골고루 함유돼 있으며 칼슘 성분이 많은 알카리성 식품입니다.

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추장, 된장을 곁들여 먹어도 해독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봄철 머위는 새순을 먹는 것이 가장 맛과 영양이 좋습니다. 머위대가 크면 먹기 때문에 씹을 때 부담스럽고 흡수가 잘되지 않습니다. 조리할 때 반드시 껍질을 벗겨야 흡수가 잘 됩니다. 데친 뒤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물요리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머위무침 재료: 머위,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된장

만드는 법

- 1 머위의 어리고 연한 줄기를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삶는다.
- 2 삶은 머위는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꼭 짠다.
- 3 고춧가루, 깨소금, 된장을 섞어 양념을 만든다.
- 4 양념장에 머위를 넣고 조물조물 버무린 후 참기름을 넣어 완성한다.

www.jawonet.com

희담석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계절, 생명이에너지가 방사되는 희담석 제품이 좋습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매트용 패드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려며, 언제 어디서든 수면으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사용방법
침상대, 매트리스, 잔기 매트, 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희담석의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뒤통의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희담석 매트용 패드
●1인용 : 35만원 ●2인용 : 60만원 (2인용은 주문 제작)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60%, 제오라이트(Zeolite) 40%
· 걸레질 : 모노방사, 황토면 · 크기 : 1,000mm×2,000mm · 무게 : 11kg

희담석 매트용 패드
●가 격 : 45,000원
●크 기 : 45mm×45mm

희담석 매트용 패드
●가 격 : 25,000원

사용방법
베개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매트용 패드를 올린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함. (뒤통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정신 집중이 될 것이고 머리가 맑아지는 - 희담석 방식

희담석 에너지가 숙면을 도와주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6-48 금강빌딩 B10338
TEL:023476-2335 FAX:023476-2555

소원성취 원불봉안

천불전에 백옥 원불을 봉안하시어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수불사에서는 원불을 봉안하는 모든 불자님들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도록 매일 정성껏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 자녀들의 입시 합격발원
-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발원
- 공무원시험 합격발원
- 입사, 취직, 승진시험 합격발원
- 사업성공 발원
- 건강발원
- 조상 영가 극락왕생 발원

수불사 주지 해광스님 집전으로 매일매일 지극정성 기도발원하여 꼭 소원성취하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불봉안불자는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비결], [불가버의] [속을 보이는 사람들] 저자인 해광스님을 친견하여 운명상담을 받고, 성취하는 기도법과 모든 필요한 방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불사 · 금강불교대학

☎ 032)665-8472 (카메: 다을[해광스님]) • 주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3-7
1. 외곽순환도로 중동 IC 라일라마을 앞
2. 상동신도시 사거리 비전타워 뒤 상 3동 사무소, 119소방센터 맞은 편

옥불제작 : 옥예원 011-347-0085